



당신도 F1레이서 일반인 드라이버들이 영암 F1경주장을 직접 주행하는 '트랙 데이' 행사가 열렸다. 4일 오전 일반인들이 서킷을 직접 질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교원 27명 임용

타 대학 출신 70% 차지

전남대학교가 검사출신 변호사와 한국은행 과장출신, 반도체 연구원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27명을 신규 임용했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번 공채에는 모두 225명이 지원했으며, 전남대가 아닌 다른 대학(외국 포함) 출신은 19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14명이 외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외국대학 등의 강의·연구 경력자는 11명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7분 해질 18시 31분 달돋이 15시 16분 달질 04시 26분

흐리고 비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7/10°C
목포	흐리고 비	7/10°C
여수	흐리고 비	6/9°C
나주	흐리고 비	7/10°C
완도	흐리고 비	7/10°C
구례	흐리고 비	6/10°C
강진	흐리고 비	7/10°C
해남	흐리고 비	7/10°C
장흥	흐리고 비	7/10°C
순천	흐리고 비	7/10°C
영광	흐리고 비	6/10°C
진도	흐리고 비	8/10°C
전주	흐리고 비	5/11°C
군산	흐리고 비	5/10°C
남원	흐리고 비	6/10°C
홍산도	흐리고 비	6/8°C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풍 세력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풍 세력 2.0~4.0m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낮음 낮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6/8	3/10	1/9	2/10	2/10	1/10

'모조치즈 피자' 발표후 피자 가게 가보니

매출 급감... 영세업체 문닫을 판

허위 광고문구 적발 놓고 대형업체와 형평성 논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조치즈 피자' 제조업체와 점포 발표 이후 하루 평균 70~80판씩 팔리던 피자 판매량이 절반 정도인 30~40판으로 줄었다. 매장을 찾는 고객도 모조치즈(일명 식용유 치즈)를 쓴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 인근 영세 피자 가게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문제가 된 모조치즈는 우유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용유를 주원료로 해 만든 사실상 가짜 치즈다. 반면 자연치즈는 우유를 주원료로 응고·발효시킨 것이며, 가공치즈는 자연치즈에 식품첨가물을 넣고 유통시켜 만든 것이다.

지난 3일 한 피자 가게 주인 김모(32)씨는 "아무리 모조치즈를 사용하

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믿지를 않는다"며 "'식용유 피자' 보도 이후 매출이 30~40% 정도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난해 말 '모조치즈 사용 피자 프랜차이즈 9곳 적발' 발표 이후 피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광고 문구 허위표시와 이번 조사의 형평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해당 업체 점주 등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식약청이 적발한 9곳 중 모조치즈를 사용한 곳은 3개뿐인데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해 모든 업체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100% 자연산 치즈'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광고

혐의가 적용된 영세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100% 자연산 치즈를 사용합니다' 라는 문구를 썼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테두리에 가공치즈를 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대형 브랜드업체들은 영세업체들과 동일하게 테두리에 가공치즈를 썼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광고문구를 '100% 자연산 피자치즈'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행정조사 피자치즈의 경우 피자에 뿌리는 토핑 치즈를 의미하기 때문에 테두리는 자연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세업체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똑같은 피자인데도 일반인에게 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부모·양아들 찾아달라"

광주 충현원에 생사 확인 요청 잇따라

신생아 때 프랑스로 입양된 30대 남성이 37년만에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데 등 광주의 전정고아 관련 시설인 충현원에 혈육과 양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충현원에 따르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오준철(37·Yves Schmid)씨가 양부모와 함께 지난달 27일 충현원을 방문해 "자신을 낳아 준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오씨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억은 37년 전 버려질 당시 작성된 서류 한 장이 전부. 서류에는 '오준철'이라는 이름으로 1975년 4월17일 태어나 2달여 만인 6월 14일에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한 복지시설 입구에 버려졌고 이를 뒤 광주 충현원에 맡겨졌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광

주 충현원에 60년 동안 잊지 못한 내 아들 '스코시'(Skoshi)를 찾게 해달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6·25 때 부산에서 미헌병으로 근무한 미국인 투제더(86)씨가 전쟁 중에 양자처럼 돌봤던 한국인 소년 스코시(당시 11세)를 예타게 찾는다. 그는 전쟁 중에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모두 잃어버린 스코시를 만났고 자신의 부대로 데리고 와 정성껏 돌봤다.

하지만 본국 소환 명령을 받아 먼저 귀국해야 할 처지에 놓여 스코시를 데려가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영영 이별했다는 것이다.

충현원의 유행방 목사는 "이들의 거처를 알고 있거나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분은 꼭 충현원(062-652-2214)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11월부터 어려워진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11월부터 전자채점 제도가 도입돼 코스 종류가 늘어나는 등 난이도가 올라간다. 운전면허 가능시험은 지난해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이라는 복병이 생기는 셈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주행시험에서 태블릿 PC로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태블릿 PC에는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며,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수험자가 원하면 주행시험 중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Seoul 2012 3.26~27 COEX

학교폭력 신고 117

폭력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더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가 보다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모두가 힘을 보태 주세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